



# 21세기의 입구에 서서

**지** 금 필자는 20세기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한편으로 시원하게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문자 그대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격변의 한 세기를 우리들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엄숙한 순간에 와 있는 것이다. 조상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일제의 식민지 침략근성으로 나라를 빼앗겼던 일은 아마도 우리민족이 금세기에 겪은 가장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1945년에 이루어낸 조국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곧이어 동족상잔의 6·25 동란을 겪어야 했고, 또한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겨레는 수 천년 묵은 가난과 혈벗음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국민의 80% 이상이 농민이던 시절에 농민들의 생계수단으로 또는 잔치용 육류공급수단으로 시작이 되었다.

1950년대 양돈은 부업규모의 이른바 “뜨물양돈” 또는 “밀기울양돈”의 원시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50년대 말 국민소득이 50불도 채 안되고 한국의 총수출이 500만불을 넘지 못하

던 시절에 우리는 생돈과 돈모의 수출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된 것을 초창기 양돈산업의 크나 큰 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지난 30년 동안 많은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60년대 말에 한때 우리나라 총 배합사료 생산량의 90% 이상을 양계사료가 차지하고, 양돈용 사료는 불과 몇% 안될 정도로 미미하던 양돈사업이 지금은 양돈용 배합사료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기술적 발전상황을 요약하면 우선 농가 호당사육규모 면에서 평균 300두로 늘어나 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당증체량은 700g으로, 사료효율은 3.0으로, 모돈 두당 연간 산자수는 22두로 2~3배이상 향상되었다. 농업분야에서 양돈산업 만치 발전한 분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근년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도시근교에서 농촌으로 옮겨가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잦은 질병의 발생과 (TGE, 돈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양돈장의 분뇨처리가 공해문제로 대두되면서 상수원 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한 인 규

서울대학교 교수(한림원 부원장)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프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양돈사업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제가 어찌 이 두가지로만 끝이 나겠는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양돈산업은 UR협상이 이루어지고,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농업 선진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을 받게 되어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년 전에 터진 IMF 경제난국은 원료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사정의 악화와 환율의 급등으로 양돈산업도 다른 축종 산업과 마찬가지로 파멸의 위기에까지 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설명한 국내외적 상황의 변동으로 양돈산업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으나 돈육생산 일선에 있는 양돈업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소비자의 도움으로 돈육가격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안정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돈육의 대일 수출이 꾸준히 증가 된데 힘입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850만두를 사육하는 양돈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와, 고급돈육 생산 기술과 질병 및 환경대책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학계와,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시킨 양돈업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화란, 덴마크, 폴란드 등 국토가 우리만하거나 더 작은 나라에서 제각기 1,000만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여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1,000만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할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돼지 질병, 오폐수 처리 및 돈육시장의 개방 등이 우리에게 많은 어

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양돈 산업은 21세기에는 돼지의 능력과 사양관리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이룩하므로써 기어코 국제 경쟁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자돈 생존율의 획기적 향상, SEW 사료의 개발과 보급, 항생제 무첨가 양돈사료의 개발, HACCP 개념의 도입, 청정 돈육생산 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품질 인증제의 조속한 도입 등을 통하여 양돈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과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첨단 양돈기술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교역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돈육수출 물량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우리 나라로 하여금 새 천년에는 양돈산업이 꽃피는 나라로 가꾸어 나가기를 바란다.

돈육의 소비량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우리 양돈인들이 값싼 고급 청정돈육을 더 많이 국민들에게 공급하므로써 국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선진 양돈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농림부, 축산관련대학과 연구기관, 양돈관련협회와 사료생산업체 그리고 유관 학회 및 양돈농민이 일치 단결하여 첨단 양돈 기술로 승부를 거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21세기는 필경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는 세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문턱에 서서 양돈업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양돈**